

유야바시 다리

유야바시 다리는 17 세기 초엽, 세상이 격변하여 정국이 불안정했던 시대 말엽에 지어졌습니다. 16 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전쟁의 그림자가 엔교지 절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. 유야바시 다리는 오늘날 사원 재건의 상징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.

15 세기 후반에 이미 엔교지 절은 많은 특징적인 건물과 큰 경제력을 가진 복합시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. 그 후의 전국 시대(1467~1603)에는 다양한 세력이 갑작스러운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광범위한 군사 분쟁이 발발했습니다. 1578 년, 무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(1537~1598, 당시는 하시바 히데요시)가 엔교지 절을 점령하여 사원의 복합시설을 산의 요새로 바꾸고, 약 2 만 명의 히데요시군 병사를 배치했습니다. 이때 병사들은 승려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건물과 불교 유물을 파괴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엔교지 절은 전국 시대에 급격한 쇠퇴를 맞았습니다.

엔교지 절의 운명은 혼다 다다마사(1575~1631)가 히메지성의 새 성주가 되었을 때부터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다다마사는 황폐해진 사원의 상태에 충격을 받고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자금을 모았습니다. 유야바시 다리는 이 부흥기에 건설되었습니다. 그로부터 3 세기 뒤인 1944 년에 다리 난간 장식인 청동 난간법수가 전쟁을 하기 위한 금속 자원으로서 회수되었습니다. 1955 년에는 혼다 다다마사를 칭송하기 위한 비문을 새긴 새 난간법수가 구조되었습니다.